

인삼시장의 개방영향과 대응전략

이동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머리 말

우리나라는 인삼생육에 적합한 자연조건, 축적된 인삼재배 및 가공기술, 국가 전매품으로서 쌓아 온 명성과 신용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세계적인 인삼 종주국 위상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동력 부족과 노임상승, 국내 인삼경작적지 부족, 인삼재배 및 가공기술의 보편화, WTO체제의 출범과 농산물무역자유화의 진전, 중국과 미국 등 경쟁국가의 인삼생산 및 차별적 유통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리더니 마침내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

정부는 인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홍삼전매제도를 폐지(1996)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는 한편 [인삼산업법]의 제·개정(1999)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인삼산업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전매제도를 기반으로 10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인삼산업지원 및 관리체계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WTO협상과 한중일 FTA체결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WTO/DDA 농업협상 타결이 우리나라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삼소비자 실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유통구조 개선과 품질차별화 등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2. 인삼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

□ 인삼의 생산

- 농촌노동력의 감소와 노임상승, 각종 농자재가격의 인상에 따른 인삼생산의 수익성 악화, 연작피해 등에 따른 재배적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생산구조나 생산기반은 전근대성을 유지하고 있음

- 호당 경지면적은 1990년의 0.33ha에서 오랜 조정 노력 끝에 2002년에는 겨우 0.55ha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영세함

□ 인삼의 가공 및 유통

- 인삼 가공상품은 120여종으로, 크게 홍삼·태극삼·백삼 등 원형삼류와 이를 2차 가공한 농축액, 분말류 등이 있는데 인삼류 가공 및 제품제조 업체는 529여 개소에 달하나 한국인삼공사등 10여개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가동률저조
- 홍삼전매제도 폐지(1996. 7. 1)후 홍삼류 제조업체가 늘어나고 인삼을 첨가한 기능성제품의 개발 활발
- 인삼공사에서 계약수매하는 6년근 수삼(전체의 약 15%)를 제외한 원료 수삼 생산량의 80%를 유사도매시장에서 100~200명의 포전매매상이 좌우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생산농가는 거래 교섭력이 취약,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 거래의 투명성 결여
- 수삼은 연근, 크기, 체형, 색택에 대한 등급과 거래단위, 포장자재에 대한 표준규격이 없으며, 연근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나 큰 뿌리는 6년근, 작은 뿌리는 4년근 또는 5년근으로 판매하여 소비자의 인삼품질에 대한 불신초래

□ 인삼의 수출입

- 우리나라의 인삼수출은 1990년의 165백만불(수삼기준 4천톤)에서 '95년에는 140백만불, '01년에는 75백만불, '02년에는 55백만불(1천8백톤)로 감소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홍삼류가 53%, 백삼류가 42%로 구성되어 있으나 홍삼제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백삼류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수출국가는 전 세계의 60여 개 국에 이르고 있으나 80% 정도를 홍콩, 일본 및 대만의 3대 시장에 편중되어 있음
- 2002년 홍콩시장에서 우리나라 인삼은 kg당 155.4달러로 미국삼 31.5달러 및 캐나다삼 20.1달러보다 높게 거래되는데 물량기준 1.6%, 금액기준 12.0%를 점유하고 있음

- 1995년부터 인삼수입이 늘어나 2002년에는 382만 달러(142톤)을 수입하였는데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
 - 수입인삼이 늘어나는 것은 WTO협정에 따라 양허한 TRQ물량의 수입 증가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백삼정과 백삼 및 홍삼의 미삼 소비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TRQ물량으로 수입하는 인삼은 1995년의 34톤에서 '02년 52톤으로 증가하였는데, 쿼터범위내는 관세율 20%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물량은 백삼 228%, 홍삼 771%의 높은 관세율 적용

□ 인삼의 소비

-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인삼의 효능에 대한 배일이 벗겨지면서 전체적으로 국내소비가 증가
 - 국민들의 연간 인삼구입량은 약712g(수삼기준)으로 수삼상태로 약 50% 소비되고, 홍삼(4.9%)·백삼(31.3%)·태극삼(2.0%) 등 1차 가공품으로 38.2%, 농축액·드링크 등 2차 가공품으로 11.8% 소비
- 서울거주 주부 3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호하는 인삼은 품질이 좋은 것(62.4%), 안전성이 높은 것 14.7%, 복용이 간편한 것 8.2%,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것 7.1%, 가격이 저렴한 것 4.2%, 브랜드가 있는 것 3.4%로 응답하여 가격보다 품질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인삼구입 시 연근은 반드시 확인한다는 응답이 62.4%로, 가끔 확인한다 27.6% 및 확인하지 않는다 10%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구입 시 어려운 점을 문의한 결과 '등급을 알 수 없다(35.5%)', '품질인증 여부를 알 수 없다(22.4%)', '연근을 알 수 없다(27.1%)'는 점을 들고 있음
- 수삼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을 문의한 결과 재배기간(45.5%), 가격(25.5%), 생산지(18.9%), 모양(5.5%), 크기(2.9%) 등을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인삼가공제품의 경우 성분함량(30.8%), 가공날짜 및 유효기간(26.8%), 원료산지(18.4%), 브랜드(15.5%), 포장상태(5.8%), 용량(1.6%) 등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
 - 인삼구입 시 90.8%가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7.9%는 가끔씩 확인하며 1.3%만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3. 인삼시장개방 전망과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

□ WTO/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

- 2003년 9월 10~14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 각료선언문 채택에 실패함
 - 농업모델리티 협상은 지난 2월에 제안된 하빈슨초안¹⁾(1차안)을 가지고 3월말까지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모델리티 확립에 실패함.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8월 말 카스티요 일반이사회 의장이 미국과 EU의 절충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각료선언안(2차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으나 개도국과 수입국그룹의 수정요구를 받아 9월 테르베스 각료회의 의장이 새로운 안(3차안)을 제시
-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선회하고 있는데 지난 10월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 10개국정상이 모여 2020년까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창설하기로 합의
 -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FTA공동연구 지속 등 14개항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10월 20일 타이 방콕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2005년까지 한일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

□ WTO/DDA 농업협상의 영향

- TRQ 대상품목은 1995~2004년까지 국내소비량의 5%(건삼기준 '95년 34.1톤, '04년 56.8톤)까지 의무 수입하도록 되어 있음
 - TRQ 품목 중 수삼과 백삼은 222.8%, 홍삼, 홍삼분과 홍삼정, 홍삼조제품, 종자 등은 754.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MMA 물량까지는 20%의 저율관세로 수입하고 그 이상은 고율 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TRQ대상이 아닌 백삼분, 백삼정, 백삼제조품 등은 18~30%의 저율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만 납부하면 자유롭게 수입 가능
- 2000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환산한 2001년 우리나라 인삼 한 차(750g)당

1) UR협상이 관세인하(선진국 36%, 개도국 24%)와 TRQ를 기준년도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5%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차안)은 선진국의 경우 40~60%(5년), 개도국은 10~40%(10년)까지 관세를 감축하고, TRQ도 선진국은 1999~2000년 평균소비량의 10%, 개도국은 6.6%까지 증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생산비는 7,351원, 농가판매가격은 19,122원, 그리고 도매가격은 31,720원으로 같은 해 중국산 수삼 수입가격 6,720원(관세 227.8% 포함)보다 훨씬 높은 수준²⁾임

- 만약 우리나라 수삼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227.8%에서 60% 감축(하빈슨초안에서 제시한 선진국 대우)될 경우 수입가능가격은 2,153원/750g에 불과하여 국산 도매가격이 무려 14배나 비싸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임

○ WTO/DDA협상결과 인삼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되고 TRQ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UR협상 결과가 지속된다는 가정(Baseline)과 하빈슨초안을 기준으로 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 영향을 계측

- [Baseline]은 UR 협상결과를 적용하는 것으로, TRQ 대상품목은 MMA량에 한해 20%의 특별관세를 적용하되 MMA량은 2004년 이후 그동안 추세를 연장하여 매년 9.3톤씩(수삼) 증가하고 TRQ대상이 아닌 품목은 현행 관세율 평균 20%를 향후 10년간 매년 1%씩 감축하여 2015년에는 10%로 인하

- [시나리오 1]은 하빈슨초안의 선진국대우와 관세율 60% 감축을 가정한 것으로 TRQ 대상품목은 2010년까지 MMA 물량을 기존의 5%에서 10%(1999~'01년 평균소비량)로 증량하고, 그 후 2015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 TRQ대상이 아닌 품목은 현행 20% 관세가 60%로 감축(8%)

- [시나리오 2]는 하빈슨초안의 선진국대우와 관세율 45%감축을 가정한 것으로 TRQ 대상품목은 2010년까지 MMA 물량을 기존의 5%에서 10%(1999~'01년 평균소비량)로 증량하고, 그 후 2015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 TRQ대상이 아닌 품목은 현행 20% 관세가 45%로 감축(11%)

- [시나리오 3]은 하빈슨초안의 개도국대우와 관세율 40%감축을 가정한 것으로 TRQ 대상품목은 2015년까지 MMA 물량을 기존의 5%에서 6.6%(1999~'01년 평균소비량)로 증량된다고 가정. TRQ대상이 아닌 품목은 현행 20%관세가 40%로 감축(12%)

2) 2001년 농촌진흥청조사결과 인삼재배농가의 평균비용과 면적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재배 규모가 크면 생산비도 낮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전체 조사대상농가(93호)의 약 12%(대부분 1ha이상)정도만 현실적으로 중국산 수입인삼과 가격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짐

<표 1>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결과

항 목	단위	'00~'02 평균	시나리오별(2013년)				비율('00~'02년 평균과 비교)			
			Base	(1안)	(2안)	(3안)	Base	(1안)	(2안)	(3안)
TRQ의 평균 관세율	%	21.0	12.0	8.0	11.0	13.6	-	-	-	-
수요량	톤	15,134	16,830	15,784	15,651	16,339	11.2	4.3	3.4	8.0
- 국내소비	"	13,185	15,567	14,520	14,387	15,075	18.1	10.1	9.1	14.3
- 수출	"	1,949	1,263	1,263	1,263	1,263	(35.2)	(35.2)	(35.2)	(35.2)
공급량	"	15,134	16,830	15,784	15,651	16,339	11.2	4.3	3.4	8.0
- 국내생산	"	14,514	14,026	10,561	10,645	12,538	(3.4)	(27.2)	(26.7)	(13.6)
- 수입	"	620	2,804	5,223	5,006	3,800	352.4	742.6	707.5	513.1
(TRQ대상품목 수입)	"	155	587	2,418	2,176	1,382	279.4	1,462.0	1,305.8	792.9
(TRQ비대상품목 수입)	"	465	2,217	2,805	2,829	2,418	376.7	503.1	508.3	419.9
자급율	%	110.08	90.10	72.73	73.99	83.17	-	-	-	-
국내가격(농판가격)	원/750g	19,457	19,015	20,652	20,879	19,753	(2.3)	6.1	7.3	1.5
재배면적	ha	12,839	11,079	8,636	8,657	10,039	(13.7)	(32.7)	(32.6)	(21.8)
생산액	억원	3,765	3,556	2,908	2,963	3,302	(5.6)	(22.8)	(21.3)	(12.3)

주 : 1) 국내가격은 수삼으로 환산한 2000년 기준 실질 농가판매가격임
 2) 시나리오별 수입가능가격의 산정은 2000~2002년 평균의 경우 관세율을 227.8%, 2013년에는 베이스라인은 UR방식으로(10%) 감축하여 205.0%, 선진국대우 60%감축은 89.1%, 선진국대우 45%감축은 122.5%, 개도국대우 40%감축은 151.5%로 가정

- 모든 시나리오에서 2013년 국내인삼소비량은 14,387~15,567톤으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00~'02년 소비량 13,185톤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750g당 국내가격은 2000~'02년 평균가격 19,457원에 비해 [Baseline]의 19,015원을 제외하고는 19,753~20,879원으로 증가
 - 수입은 2000~'02년 평균 수입량 620톤에 비해 [Baseline]의 3.5배에서 [Baseline]의 7.4배까지 급격하게 늘어나서 자급율은 현행 110%에서 최악의 경우 72.7%[시나리오 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국내생산은 2000~'02년 평균생산량 14,514톤에서 [Baseline]의 14,026톤에서 최악의 경우 10,561톤[시나리오 1]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인삼은 농산물의 하나로 결국 농산물시장 개방일정에 따라 언제, 어느 정도로 개방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 다만 인삼이 가진 지역성과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협의 여부에 따라 (3차안)에서 제시된 특별품목(SP)으로 포함할 것이냐에 따라 개방일정과 폭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세계 인삼시장은 크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부일대에서 생산되는 동양삼(고려인삼)시장과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생산되는 화기삼시장으로 대별되는데, 인삼시장이 자율화될 경우 ① 중국에서 생산된 값싼 동양삼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인삼생산의 위축과 ② 홍콩, 대만 등 세계 인삼시장에서 화기삼과 저가의 중국삼의 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른 고려인삼의 수출 감소가 전망됨

4.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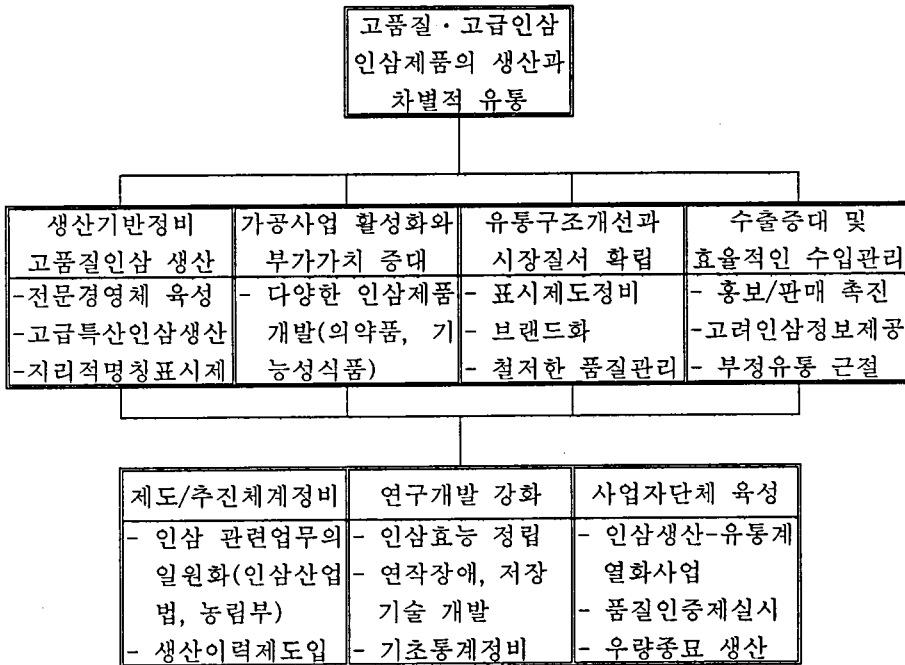
- 인삼시장의 개방대책이란 결국 저가의 외국삼 공세에 대응하여 국내시장에서 생산기반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해외에서 고려인삼의 수출시장을 유지·발전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동안의 추진해 온 인삼산업 경쟁력제고대책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음
- 우리나라의 인삼산업은 최근 농촌 노동력부족과 노임상승,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 세계인들의 건강에 대한 늘어나는 관심을 고려할 때 앞으로 건강문화산업으로써 인삼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인삼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SWOT분석에서 밝혀진 우리나라 인삼산업이 강점을 바탕으로 기회를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표 2> 우리나라 인삼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구 분	기 회(O)	위 기(T)
강 점(S)	- 세계시장에 널리 알려진 명성 - 인삼효능에 대한 소비자인식 - 인삼생산, 가공 및 유통 규제완화	- 경쟁국의 노력과 도전 - 농산물수입개방 가속화 - 인삼생산 및 가공기술의 보편화
약 점(W)	- 인삼조합중앙회의 통합 - 인삼산업 관리체계 미비 - 영세제조업체 난립과 과당경쟁	- 노동력 부족과 노임상승 - 연작피해, 경작적지 부족 - 밀수인삼, 유통질서 문란

-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가격보다도 품질이 좋고 안전한 인삼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과 '저가의 중국산이 수입·유통될 경우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내산만 구입 하겠다'는 의사를 미루어 볼 때 개방화시대 우리나라 인삼산업발전의 기본방향은 “고품질·고급인삼 및 인삼제품의 생산과 차별적 유통”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고려인삼의 핵심효용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의약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삶의 여유를 즐기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움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중국삼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상³⁾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인삼산업의 발전 방향과 대응과제



3) 소비자조사에서 '인삼이나 인삼제품 복용은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80.7%,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1%로 대부분이 인삼의 효능에 대해 동의 하고 있음. 특히 '고려인삼과 중국삼의 효과가 동일하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3.5%에 불과한 데 비해 '다르다'는 응답이 89.5%로 고려인삼과 중국삼을 차별화된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음

5.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전략

① 고품질 특산인삼의 생산과 인삼계열화사업의 추진

- “동양의 신비한 영양”으로 널리 알려진 고려인삼의 건강·기능성효능을 부각시켜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청정인삼’과 ‘대편 우량인삼’, 또는 ‘장뇌삼’이나 ‘산양삼’과 같은 고품질 인삼 생산
 - 지역특성에 맞는 인삼경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특산인삼의 차별화를 위한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 인삼경작자와 계약재배를 하고 생산자단체가 이를 수매하여 차별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인삼생산-가공-유통계열화사업의 추진
 - 2004년에는 인삼수확면적의 약 10%(500ha)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향후 사업의 성과를 보아 30~40%수준까지 확대
 -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생산한 인삼’이란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생산이력증명제도’를 도입, 식탁에 오르기까지 소비자가 가정에서 생산-가공-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회복

② 활용한 인삼가공 및 유통산업의 활성화

- 생명공학기술을 인삼제품에 접목하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복용(음용)이 간편한 건강식품이나 고부가가치 의약품 등 다양한 인삼제품 개발
 - 농산물가공산업육성정책으로 인삼제조업체에 대한 시설현대화, 원료확보, 경영개선, 연구개발과 홍보·판매촉진 지원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등에 포함된 인삼 제품가공업 관련 진입장벽과 지나친 규제완화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해 인삼제품 및 홍삼제품도 식약청장의 제조업허가, 품질관리사 고용, 생산실적 보고, 안전성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데 비해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홍삼 등의 제조는 단순 신고로도 가능

③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표시제도 정비와 유통질서의 확립

- 연근과 외형을 중시하는 고려인삼의 특징을 구체화하여 수삼의 연근,

크기, 체형, 색택에 대한 등급과 거래단위, 포장자재에 대한 표준규격과 표시기준을 설정⁴⁾하여 철저한 품질관리

- 생산자단체가 품질인증차원에서 연근, 품질 및 원산지표시를 하고, 수삼생산 및 유통확인서 발급으로 자율적 관리
- 인삼은 ‘대한약전’ 등에 의해 의약품으로 취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없다는 표현은 인삼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⁵⁾이 있음
- [건강기능성식품의표시기준]에 의하면 인삼은 “원기회복, 면역력증진 또는 자양강장에 도움을 준다는 건강기능성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밖에도 인삼은 ‘성기능개선, 스트레스완화, 집중력 및 기억력 개선, 간기능 개선, 숙취해소, 콜레스테롤조절, 혈압조절, 혈당조절, 혈행개선, 위장기능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입증(한국인삼공사, 2003)’된 만큼 이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4) 인삼의 수출촉진과 효율적인 수입관리

- 인삼수출의 증대를 위해서는 제품의 다양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 그리고 목표시장별 제품전략, 가격전략, 유통채널 및 홍보·판촉전략 구사
- 수출입제도, 인삼시장 실태와 소비자들의 선호도 등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
- 대 중국 및 유럽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장 설치운영과 의약품 및 건강식품등 인삼제품류의 현지 합작생산 가능성 모색
- 효율적인 수입인삼 관리를 위해 수입 인삼류의 분류(의약품 및 식품)와 통관 검사기준 제정, 그리고 원산지표시 및 확인 시스템을 정비하여 확실한 품질관리 필요
- 미국에서는 모든 인삼제품류를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중국·대만·일본 등 주요 수입국에서는 소비자들이 고려인삼을 의약품으로

4) 프랑스포도주는 AOC급포도주, 지방특산포도주, 테이블용포도주 등 4 등급으로 나누어 생산연도와 품종, 재배지역, 제품명, 등급, 용량, 알콜도수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5) [건강기능성식품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인삼제품 및 홍삼제품에 대해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식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뿌리삼(분말, 진액포함)은 의약품, 인삼 제품은 보건, 건강식품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음

- 국제시장에서 '고려인삼'에 대한 명칭을 보호받기 위해 국제지적재산권재단(WIPO)에 고려인삼의 지리적 표시등록 추진
- 고려인삼의 홍보와 시장개척을 위하여 ① 정부와 수출업자, 또는 인삼사업자협회가 공동광고, ② 인삼영화 제작이나 우수 도·소매상 방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연구기관에 연구비나 시료 제공등의 사업추진, ③ 매 4년마다 실시하는 국제인삼심포지엄을 확대하여 '세계인삼 EXPO (가칭)' 개최, ④ 일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한 검사품에 대해 아시아시장에 널리 알려진 '고려인삼' 상표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5] 인삼분야의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고려인삼연구센터' 설치, 운영

- 과거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중앙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게 공익차원의 기초연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연구기관인 '고려인삼연구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품종, 연작장해 해소, 보관 및 저장기간 연장, 인삼효능의 과학적인 규명, 다양한 인삼제품개발 등 기초연구는 물론 인삼종주국으로써 인삼에 관한 국제기준 설정, 세계인삼EXPO 개최 등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적 역할을 주도적 수행

6] 인삼산업의 발전주체로서 사업자단체 육성

- 생산자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① 인삼협동조합의 기능을 재정립 및 관할구역의 조정, ② 중앙회와 지역조합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③ 가공 및 유통업자의 조합원 흡수 등 조합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직정비가 필요
- '농협고려인삼(주)'를 중심으로 통합농협이 가진 자원·판매망·관련사업 등을 활용한 시너지효과 창출, 인삼관련업계 등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및 회원조합과 연합마케팅 추진
- 인삼 생산, 가공, 유통, 수출입에 종사하는 관련 산업 종사자간에 '인삼사업자협회(가칭)'를 조직, 인삼산업 발전의 주체로 육성
- '인삼의 날' 행사를 세계적 인삼축제로 발전시키고, 세계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삼 관련 문화상품 개발, 고려인삼의 품질 및 브랜드 관리, 고

려인삼에 대한 공동연구 및 홍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강화 등 기타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 강화

- '인삼사업자협회'의 회원들이 인삼사업발전기금 또는 자조금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광고 및 시장개척,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에 주체적 참여 유도

7] 인삼산업관련 제도와 추진행정체계의 정비

- [인삼산업법]에 제품을 포함한 인삼의 생산, 가공, 유통뿐만 아니라 검사, 수출입 및 연구개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포함하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인삼제품의 제조허가, 효능표시 및 수출입관련 규정을 [인삼산업법]으로 일원화하여 종합적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
- 특히 인삼제품사업을 인삼산업에서 제외해 놓고는 새로운 인삼수요의 창출이나 인삼산업의 활성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삼산업법]을 기초로 뿌리삼과 제품부문을 통합해야 하며, 시장에서 장뇌삼과 산양삼 등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인삼산업법]에서 이를 수용할 필요⁶⁾가 있음

6) 현행 [인삼산업법] 제2조 '인삼 및 인삼류의 정의'에는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만을 포함하고, 인삼류제조업에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하는 것만 포함하고 있어서 다양한 원료를 사용한 인삼제품이나 산양삼 등은 제외하고 있음